

■ 서평 ■

『원수들, 사랑 이야기』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 지음, 열린책들, 2008년

이경일(인하대학교)

역설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제목(*Enemies, A Love Story*)을 단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7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Issac Bashevis Singer)의 작품이다. 평생 동안 수십 편에 이르는 소설과 동화 등의 다작을 자랑하는 싱어의 작품들 가운데 이 소설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태어난 땅 폴란드를 떠난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으로서의 혼돈스러운 삶과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소수민족인 유대인이라는 태생적 정체성과 이주민으로서의 뿌리 뽑힌 처지를 한 몸에 지닌 싱어의 인생 역정은 그 자체로 특히나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902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싱어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1935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 후로는 자신에게 덧대어진 미국 시민으로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1991년까지 길고도 문학적으로 풍성한 생애를 살았다. 그의 문학적 여정 역시 크게 폴란드 시기와 미국 시기로 나뉘질 수 있으며, 이 시기 구분으로 싱어의 문학적 특성이 동유럽인들과 비교되는 유대인들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와 몰두에서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한층 더 독특한 경험 세계가 겹쳐 쌓였음을 알 수 있다.

『원수들, 사랑 이야기』 역시 싱어가 고향을 떠나 미국에 이주한 지

40년 가까이 지난 1972년에 출간된 작품임에도 여전히 중심인물과 주변 세계는 모두 유대인들로 채워져 있다. 더구나 나치의 집권 이후 이주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종교와 현실이라는 대립 내지 교차의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갈등을 극대화시켜 드러내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도 이들이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던 시기인 1940년대 말엽이며, 뉴욕에 거주하는 독특한 처지에 놓인 한 유대인 남성을 주인공 삼아 그의 삶에 드리워진 애환과 부조리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씩씩하게 그리고 있다. 이 모두가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주의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과 집단 서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허구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주인공인 헤르만 브로테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으로 랍비의 대필 작가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프로필 가운데 매우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단한 삶의 와중에도 의도하지 않게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애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결혼한 지금의 아내는 이전에 폴란드에서 자신의 하녀로 일했던 시골처녀 야드비가였다. 헤르만은 나치의 손에 첫 부인인 타마라와 아이들을 잃은 상태였고, 나치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야드비가와 미국으로 건너온 후 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보은의 표시에 불과했으며, 정서적·지적 갈등에 목말랐던 헤르만은 자신과 비슷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마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타마라가 나타나게 된 상황이 바로 헤르만이 예기치 않게 ‘능력남’에 이르게 된 전말이다.

제목의 일부가 ‘사랑 이야기’이듯이, 이상의 구도는 이야기를 헤르만과 그의 여인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이끌고 있으며, 여기서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갈등 요소들의 분출이 바로 전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세 여자 모두와 얽힌 가장 복잡한 관계 선상에 놓인 헤르만의 처신은 이야기의 축이자 실마리이다. 헤르만은 몹시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려 하지 않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려 하지 않는, 순간순간의 사정에 자신을 맡긴 채 떠밀려가는 존재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마땅한 사랑이

그에게는 늘 자기변명이 필요한 대상이며 자기 자신을 속박지우는 굴레가 되곤 한다. 그런 무책임함과 의지박약 속에서 헤르만은 매 순간 자기 보호와 자기 파괴의 양극단을 오고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으로 얼룩진 그의 하루하루는 그를 옥죄어 가고 마침내 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대비하고 싶지는 않은 파멸의 때를 맞게 된다. 마샤와 동반자살을 약속하지만 마샤만이 자살하도록 방치한 후, 헤르만이 종적을 감추고 도피함으로써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는 소설의 결말은 헤르만이 너무나도 바라마지 않았을, 아니 그에게 너무나도 걸맞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달콤함보다는 피곤함을 안기는 감정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심지어 믿음 어린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헤르만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의 여자들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연애소설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헤르만의 무기력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세상만사와 인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근저에는 바로 신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목도하고 체험한 헤르만은 자신이 젊은 날에 심취했던 철학에 대해서 진보라는 이름의 헛된 약속을 내놓는다고 혐오감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신이 방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기대기 마련인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자기의 외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넘어서 헤르만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자포자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수들, 사랑 이야기』를 관통하는 테마로서 떠올리는 두 개의 단어는 유대인과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비단 주인공 헤르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홀로코스트가 남긴 트라우마가 현실의 그늘처럼 늘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리고 새로이 이주한 땅 미국에서도 그들은 과거의 환영 속에 정신적·종교적 아노미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 나아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노미의 또 다른 얼굴인 회의감이 개인 차원에서는 절대자인 신과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으로 외화된다는 점에서 유대인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고뇌로 발전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유대인과 개인이라는 두 방향의 접근은 싱어의 문학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인 듯싶다. “폴란드계 유대인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상황을 이야기한 감동적인 문학”이라는 노벨상 선정 이유는 바로 자신과 자기 민족의 경험에서 비롯된 성찰과 문제제기를 인류가 비판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한 그의 노력을 높이 산 것이다.

『원수들, 사랑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싱어에게서 자기 민족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은 그가 늘 천착했던 소재였으며 또한 유대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물음과 해답 찾기는 그의 끊임없는 고민거리였다. 유대인 박해가 나치 독일이 인종적 기준에 따라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격리 혹은 추방, 최종적으로 학살로 내몬 사건이라고 말해지기는 하지만, 누가 인간의 광기가 불러온 최악의 재난의 희생자인 유대인인가라는 물음에는 생각의 템포를 한 박자 늦출 필요가 있다. 언뜻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종교적으로 혹은 혈연적으로 확고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리아인/유대인의 강고한 이분법을 특징으로 하는 나치의 제국국적법 시행령이 보여주듯이 훨씬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더구나 나치가 채택한 유대인의 범주가 타자의 눈으로 외부에서 규정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정체성의 내용이 타자/자아의 구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피상성과 공허함 속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적어도 싱어에게서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은 그들의 문화,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종교로서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 그가 오랜 미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작품을 동유럽 유대인들의 언어인 이디시(Yiddish)어로 쓰기를 고집했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소수 언어가 지배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동유럽인들의 한 귀퉁이에서 힘겹게 살아온 망명자들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혈통적·종족적 일체감을 유지하고 확인하는 매개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공기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반면, 유대인들에게 이디시어는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구사 행위 자체가 바로 타자와 대면해서 행하는

자신들의 존재 실천이었던 셈이다. 싱어의 ‘자신의 언어’를 간수하고 지키려는 노력 역시, 그의 말을 빌자면 “종교적 환희, 삶에 대한 욕구,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인내력, 그리고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 등을 발견하려는 행동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 노력은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는 순간에도,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이디시어로 소감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뚜렷이 밝히고자 했던 일화로도 이어졌다.

이렇듯 ‘겨레말’에 대한 천착이 자기 정체성 발현의 한 방식이라면, 내용으로서의 문학에서 싱어가 유대인을 규정하고자 했던 기제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싱어 자신은 늘 무신론자를 자처했지만, 그의 정신적 뿌리가 유대교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자신도 부정하지 않았다. 어찌면 그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하는 모든 즐거움과 능력과 지식을 고스란히 향유하면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는 점에서, 싱어의 종교적 지향은 실은 훨씬 원대하고 근본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종교를 드러내는 방식은 방향 제시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윤리와 신앙에 대한 문제제기와 회의를 통해서이다. 이 소설에서도 유대교의 관습과 신앙에 대한 불신에 가득한 헤르만의 태도는 종교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되물음과 되새김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는 종교적 윤리와 사회의식, 그리고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헤르만은 홀로코스트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참극을 겪고서 환멸과 체념으로 가득한 인물의 무기력한 갈등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싱어가 그려내는 유대인은 집단으로서가 아닌 유대인 개인, 특히나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투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는 유대민족의 틀을 벗어나 인류 전체에 호소하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원수들, 사랑 이야기』의 기조는 분명 싱어 자신이 견지하는 비관주의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 냈다고 할 수 있다. 한데, 그의 비관주의를 잘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뿌리 깊은 염세라기보다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의 경험이 제언하는 신중한 관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무작정 퇴폐적이라기보다는 만연한 불의와 잔인성의 심연 속에서도 사랑의 힘을 찾고자 하는 더없이 지난한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은 타마라가 「다시 태어난다면 생각해보죠. 헤르만과 재혼하는 거라면요」라는 이 소설의 마지막 글귀는 너무도 담백하지만 쉽사리 변치 않고 언제까지고 기다리는 데에 익숙한 사랑에 대한 싱어의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leoandrius@yahoo.com